

완도군 해양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 착수

고려대 이은일 교수팀 주도
해풍·태양광 등 영향 분석
심신 치유 매뉴얼 만들어

완도군이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완도군은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은일 교수팀 주도하에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시작했다

해풍·태양광 등 해양기후 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비치바스켓(해변의자)과 노르딕워킹(산책), 명상 등의 방법이 있으며 해양치유 요법 중 하나이다. 특히 해풍에 함유된 염분성분은 호흡기, 알레르기,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을 걷고 있다. <완도군 제공>

개발 용역을 맡고 있는 이은일 교수는 해양기후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방법과 역학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완도의 해양기후 환경과 여건을 의학적으로 과학

적인 접근과 검증을 통해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치

유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지원 해양치유산업 협력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4계절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공기의 비터미라라 불리는 산소음 이온이 풍부한 것은 완도가 갖는 해양기후 치유를 위한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편백나무 등을 이용한 산림 치유센터가 있긴 하지만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자원이 산림자원보다 치유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치유 자원의 종류도 더 많은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기후 치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치유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농업인 굴삭기·지게차 위탁교육

진도군이 농업용 지게차와 굴삭기에 대해 이론적 지식과 실제 작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교육을 지원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3t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에 대한 면허취득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군은 교육비의 60%를 지원한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면허증이 없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용 굴삭기를 대여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완도군 미생물·드론 이용 친환경 방역

완도군이 질병 매개체인 모기나 파리 등의 유충 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에게 안전한 친환경 맞춤형 방제에 나섰다. 특히 '드론'을 이용해 유충 서식지를 파악해 원천 방역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9일 읍·면 방역소독 업무담당자와 민간자율 방역단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독법 등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소개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지역 12개 읍·면의 아파트 집수정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절기 모기유충 방제를 진행했다.

또 3월부터는 물웅덩이와 복개지역, 공원주변의 하천 등 드론을 활용한 유충 서식지 파악에 나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은 기존 경유를 사용했던 연막소독 방식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분사제로 바꿔 친환경 방역방법을 도입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 거리 수놓을 봄꽃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육묘장 하우스에서 출하를 앞둔 꽃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 꽃들은 봄맞이 거리 단장에 쓰일 예정이다. 해남군은 3월 중순까지 비올라와 리빙스턴데이지, 가자니아 등 5만5000여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완도 읍·면 순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완도군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주요 축제인 청산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 축제, 토요상선콘서트 등이 봄철에 집중돼 있어 위생부터 꼼꼼히 준비한다는 방침에서 마련됐다.

품위생법 해설과 영업자 세부·노무교육을 통해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음식점위생등급제와 전복소스 사용의 필요성도 안내해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위생교육과 함께 오는 23일과 4월 3일에는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산면사무소로 강사를 초청해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서비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방치 지하수 폐공 신고 하세요"

진도군이 지하수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사용이 중단되어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펼친다.

신고대상 폐공은 미등록된 지하수로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는 관정과 수질이 불량해 이용에 부적합한 관정 등이 해당된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이후 방치돼 있는 폐공을 찾아 원상 복구한다.

특히 찾아낸 폐공은 현장 확인을 통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관측정이나 급수정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원상 복구로 결정된 관정은 메울 공사를 통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군은 관내에 방치되고 은닉된 모든 지하수를 찾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에 폐공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8개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출산율 1위' 해남군 중장기 출산정책 수립

5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이어고 있는 해남군이 2030년을 목표로 중장기 출산정책 수립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28일 중장기 출산정책 미래설계를 위한 출산정책회의를 개최, 출산율 향상과 보육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이때 따라 군은 인구 총괄팀, 결혼·주거·일자리팀, 인신·출산팀, 보육·교육지원팀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등 32명이 한자리에 모여 군의 출산정책에 대한 중장기 미래설계를 하고 공동정책 발굴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

하게 된다. 군은 앞서 분야별 미래설계 보고회를 통해 합계출산율 5년연속 1위의 성과를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보육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점포임대 - 구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지리산 온천 정문 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55평), 편의점(55평), 지하 - 노래방(85평)
- 호텔건물 내 있음, 비품권리금없음
- 모든점포 분할임대가 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입주
-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